수입차 거침없는 질주… 올해 12만대 팔렸다



12만1566대 신규 등록 전년 동기대비 20.5% 늘어 벤츠, E 250 등 7690대 '1위' 렉서스 등 日 브랜드 증가세



메르세데스-벤츠의 E 250이 5개월 연속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. 메르세데스-벤츠 E 클래스(왼쪽)와 렉서스가 올 상반기 출시한 뉴 LS.

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올초부터 시작된 수입자동 차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.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썼던 수입차는 올해 들어 매달 전년대비 판 매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 덕분에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

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월 수입 승 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5% 증가한 2만4080대로 집계됐다.

여기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12만15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.5% 증가하 는 등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.

다만 지난달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달인 4월 2만 5578대보다 5.9% 감소했는데, 이는 일부 브랜드 의 물량 부족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한국수입차협 회 측은 분석했다.

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-벤츠 가 7690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1위 를 차지했다.

2위는 6257대인 BMW이며, 폭스바겐 1358대, 볼보 1264대, 지프 1110대, 미니 1095대, 렉서스 1007대, 포르쉐 847대, 포드 655대 순이다.

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3월과 4월에 이어 벤 츠 E 250(1257대)이 차지했다. BMW 520은 873 대, 폭스바겐 제타 1.4 TSI는 759대가 등록됐다.

특히 일본 브랜드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. 국가별 등록 대수를 보면 유럽 브랜드는 1만 9249대(79.9%)로, 이어 미국 2796대 (11.6%), 일본 2035대(8.5%) 순이었다.

일본 브랜드는 전년 동월 대비 21.7% 증가하며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.

일본 브랜드 중 렉서스의 경우 1007대가 팔리면 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.5%나 늘었고, 626대 가 팔린 토요타는 29.1%가 증가했다. 혼다도 402 대가 판매돼 137.9%의 증가율을 보였다.

렉서스의 경우 ES가 699대가 판매되면서 지난 달 수입차 모델 중 판매 5위에 오르기도 했다.

연료별로 보면 가솔린 1만1677대, 하이브리드 6695대, 디젤 3105대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43 대, 전기 560대로, 가솔린과 디젤 차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달리 친환경차 등록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였다. 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

그랜저, 르블랑 있음에…

지난달 신형 계약 7600대 중 4000대 5년 연속 10만대·판매 1위 '청신호'

현대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스페셜 트림 (등급) '르블랑' 〈사진〉의 인기로 5년 연속 국 내 판매 1위 기록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.

7일 업계에 따르면 그랜저는 지난달에 약 1 만5000대가 계약됐다. 올해 1~4월 월평균 계 약 대수인 9000대보다 17%가 늘어난 수치다. 이는 지난달 11일 출시한 연식 변경 모델인

2021 그랜저 효과로 보인다. 지난달 계약된 그랜저 1만5000대 중 7600 대가 신형 그랜저로 집계됐다. 그중 그랜저 르 블랑은 4000대가 계약돼 신형 그랜저 계약 물

신규 인테리어 색상과 고객 선호 사양의 기 본 탑재 등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 인다.

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

현대차는 고급스럽고 정제된 이미지를 강조 하기 위해 스페셜 트림의 이름을 흰색을 의미 하는 프랑스어인 르블랑으로 지었다.

또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, 12.3컬러 LCD 클러스터, 엠비언트 무 드램프,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, 후측방 모니 터, 서라운드 뷰 모니터, 앞 좌석 통풍 시트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.

르블랑의 인기에 힘입어 그랜저는 5년 연속 베스트셀링카 기록 달성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.

그랜저는 올해 1~5월 국내에서 총 4만 3347대가 판매되며 포터(4만2903대)를 제치 고 1위를 차지했다.

 $1 \sim 4$ 월 누적 판매량은 포터가 3만5973대로 그랜저(3만5545대)를 앞섰으나 지난달에 그 랜저가 7802대 팔린 반면 포터는 6930대 판매 되며 순위가 역전됐다

업계 관계자는 "이런 추세라면 그랜저가 5년 연속으로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기록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/연합뉴스

기아, 새 엠블럼 '더 2022 니로' 판매 돌입

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식 변경 모델 '더 2022 니로' (The 2022 니로·사 진)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.

기아의 대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(SUV) 모 델인 니로는 2016년 출시 후 우수한 상품성과 경제 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.

기아는 더 2022 니로에 기아의 신규 엠블럼을 적 용하고, 기아의 표준화된 트림 명칭체계인 트렌디・ 프레스티지·노블레스·시그니처를 적용해 고객 혼 선을 줄이고 통일감을 부여했다.

또 기본 트림인 트렌디부터 크루즈 컨트롤, 차로 유지 보조, 후석 승객 알림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.

이와함께 프레스티지에는 스마트키 원격시동 기능을, 노블레스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(정차&재출발)을,시 그니처에는 동승석 파워시트 를 기본 적용했다.

더 2022 니로 판매가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소 세 3.5% 반영을 기준으로 하

이브리드 ▲트렌디 2439만원 ▲프레스티지 2608 만원 ▲노블레스 2829만원 ▲시그니처 3017만원 이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▲시그니처 3939만 원이다.



기아 관계자는 "더 2022 니로는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화해 향상된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더 큰 만족 감을 제공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시크한 블랙 위 레드 포인트 쌍용차 코란도 R-플러스 블랙 선보여

쌍용차가 코란도 스페셜 모델인 R-플러스에 검 은색 외관을 더한 'R-플러스 블랙' 〈사진〉을 추가 해 선보인다.

7일 쌍용차에 따르면 R-플러스 블랙은 코란도 C 5 모델을 기본으로 레드(R) 포인트를 더한 스페셜 모델이다. 블랙루프의 투톤 외관 색상으로 그랜드 화이트나 플래티넘 그레이 색상만 선택할 수 있었 지만,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블랙 색상의 R-플러스 블랙을 추가 운영한다.

R-플러스 블랙은 블랙 바디 색상과 블랙 패션루 프랙·스포일러가 조화를 이루고, 전면 범퍼 및 2열 도어와 아웃사이드 미러에 레드 포인트로 스타일을 강조했다. 이밖에 시트&스티어링휠 및 센터암레 스트, 카 매트 등에 레드 스티치(stich)를 적용해

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 이즈 콕핏(Blaze Cockpit) 및 운전석 전동시트, 1 열 통풍 시트와 전자식 파킹브레이크(EPB), 풀 발 광다이오드(LED) 헤드램프, 전방 주차 보조 경고 시스템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해 가성비

판매가격은 기존 R-플러스 모델과 2715만원으 로 동일하다. 트림별로는 ▲C3 2253만원 ▲C3 플 러스 2346만원 ▲C5 2391만원 ▲C5 플러스 2573 만원 ▲C7 2903만원으로, 디젤 선택 시 모두 195 만원이 추가된다. /박기웅 기자 pboxer@





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

■응모기간: 2021년 4월 15일 ~ 9월 30일 ■추첨일자: 2021년 10월 20일



응모권 지급 조건

·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

· 정기예금 신규

정기적금 신규

· 대출 신규(범위내, 공제약관 제외)

· 공제 상품 가입 (생명, 화재) · 체크카드 신규 발급 (영수증 제출)

· 자동이체 신규

·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

2020년 출자금 **3.0%** 배당

정 기 적 금

1년 3.0%

자신만만자유예탁금

하루만 맡겨도 최고 1.5%

담보대출특판(100억)

최대한도 80% 최저이율 3.5%

MG금남새마을금코 본점T223-8007(대인동한미쇼핑1층) 충장지점T223-7217(충장로5가입큐)